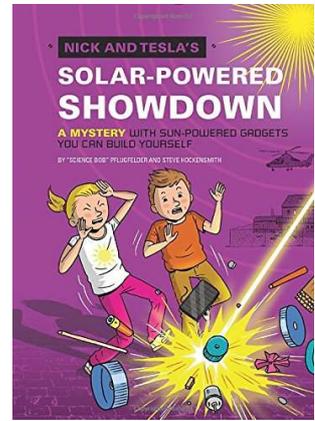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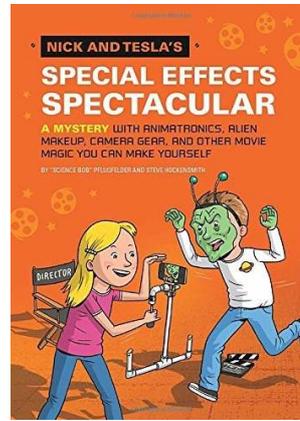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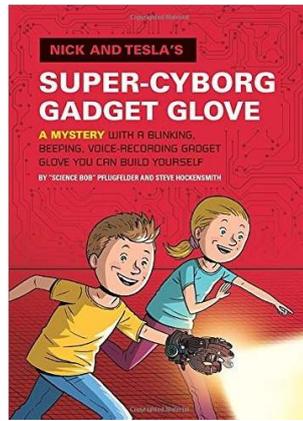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NICK AND TESLA (3~6권)
가제 : 닉과 테슬라 시리즈
저자 : Bob Pflugfelder, Steve Hockensmith
출판사: Quirk Books
장르 : YA 소설



열한 살 닉과 테슬라는 과학과 전자기기, 말썽 피우는 일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이란성 쌍둥이 남매다. 엄마아빠가 갑자기 사라진 이후, 두 사람은 엉뚱한 천재로 명성이 자자한 뉴트 삼촌의 집에서 살게 된다.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비밀 장치를 고안하고 제작하는 삼촌과 함께 지내면서, 닉과 테슬라도 기발한 장치를 직접 만들기 시작한다. 맥가이버 부럽지 않은 두 사람의 발명품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내 만드는 방법이 상세히 소개되므로 독자들도 만들어볼 수 있다.

3권: 비밀요원의 장치(Secret Agent Gadget Battle) / 256 페이지 / 2014년 5월 6일

사악한 납치범들과 로봇 부대를 겨우 물리친 닉과 테슬라. 겨우 한숨 돌리려는데, 뉴트 삼촌의 비밀 장치를 훔치려는 스파이가 연구소 내부에 있다는 정보가 두 사람의 귀에 들려온다. 새로운 삼촌의 조수일까? 해충 관리업체에서 나온 사람? 가정부?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일까? 베일에 싸인 스파이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닉과 테슬라는 지문 감식 파우더와 스파이 카메라, 도둑 탐지기까지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기 시작한다.

4권: 수퍼 사이보그 장갑(Super-Cyborg Gadget Glove) / 272 페이지 / 2014년 10월 7일

뉴트 삼촌은 친구인지 연인인지 모를 '애매모호한 사이'인 로봇 전문가 히로코와 함께 과학 박

물관에 새로운 로봇을 전시하기로 하고, 닉과 테슬라에게 거들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런데 대망의 전시 첫 날, 누군가 로봇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다! 아인슈타인 로봇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온 건물을 휘젓고 다니고, 다윈 로봇은 머리를 잃어버린 채 괴기스러운 몰골로 남아 있다. 대체 누가 저지른 짓일까? 아마추어 발명가 닉과 테슬라는 범인을 잡기 위해 새로운 장치를 만들어낸다. 슈퍼 사이보그 장갑과 함께 LED 신호등, 긴급 알람, UV 메시지 해독기 등 이번에도 기상천외한 기기가 가득 등장한다.

5권: 특수효과 쇼(Special Effects Spectacular) / 256 페이지 / 2015년 5월 5일

닉과 테슬라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책 주인공이 할리우드의 초대형 영화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어떤 영화가 탄생할까, 기대에 부풀어 있던 두 사람은 누군가 영화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한다는 낌새를 눈치챈다. 반드시 그 악당을 찾아내야 한다! 닉과 테슬라는 스텐트맨 드마르코와 영화광 실라스의 도움을 받아, 영화 '충격 받은 메탈맨'의 촬영장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악당의 소행을 밝혀내기 시작한다. 물론 두 사람이 직접 만든 스텐트용 마네킹과 카메라 장비 등 새로운 발명품도 빠질 수 없다.

6권: 태양열을 이용한 마지막 결전(Solar Powered Showdown) / 264 페이지 / 2016년 5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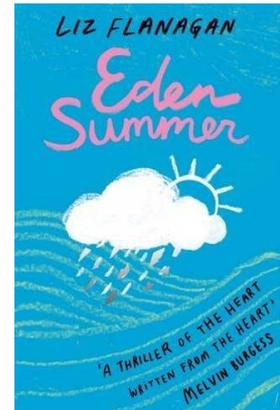
어린 발명가, 닉과 테슬라는 그 동안 스파이더 납치범, 악당을 여러 차례 찾아내고 잡아들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엄마아빠의 행방을 찾는 일이다. 누가 부모님을 잡아갔을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된 남매는 괴짜 천재 뉴트 삼촌과 직접 만든 태양열 장치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을 찾아 나선다. 과연 두 사람은 부모님과 재회할 수 있을까? 태양열로 작동하는 핫도그 요리기, 도청 장치, 탁구공이 튀어 오르는 야간 대포 등 독특한 발명품들이 두 사람의 모험에 힘을 실어준다.

<저자 소개>

밥 플룩펠더(Bob Pflugfelder)는 교사이자 방송인으로, 과학의 흥미진진한 특징을 웹사이트와 TV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스티브 호크스미스(Steve Hockensmith)는 단편소설에 매진하다가 아동 도서를 쓰기 시작했다. 설록홀즈를 사랑하는 카우보이 소년 두 명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동 도서 시리즈 『Holmes on the Range』를 쓴 작가로, 시리즈 1권은 에드가 상, 샤머스 상 등 다양한 상의 결승 후보에 올랐다.

제목 : EDEN SUMMER
가제 : 이든의 여름
저자 : Liz Flanagan
출판사: David Fickling Books
발행일: 2016년 7월 7일
분량 : -
장르 : YA 소설



갑자기 사라져버린 단짝 친구, 서로 다 안다고 생각했던 두 친구의 엇갈린 기억과 사랑

제스는 여느 때와 다름 없이 학교 갈 준비를 마쳤다. 씻고, 아이라인을 그려 넣고, 문신을 가리고, 소소한 준비를 하는 동안 기분이 좋아서 노래까지 흥얼거렸다. 엄마와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누고, 제스는 스쿨버스에 올랐다. 뭔가 이상한 조짐이 감지된 건 학교에 거의 다 왔을 때부터였다. 버스에서 내린 제스는 단짝친구 이든의 엄마가 교문 근처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평소와 달리 화장을 전혀 하지 않은 얼굴이며, 눈물로 온통 얼룩진 불안한 표정으로 위태롭게 차를 몰고 어딘가로 가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다. 이어 제스는 휴대전화에 이든의 집에서 걸려온 부재중 전화가 뜬 것을 보고 다시 놀랐다. 왜 학교에 와 있어야 할 시각에 이든이 집전화로 전화를 했을까? 일단 이든부터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다급히 들어선 학교 안에도 온통 묘한 공기가 가득 차 있었다. 제스만 모르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했다. 이든은 전화를 받지도 않고, 어서 전화해 달라는 메시지를 남겨도 답이 없다. 운동장이며 복도에서 마주친 아이들마다 제스에게 이든이 어디 있냐고, 괜찮은 거냐고 물어댔다. 모두가 제스와 리암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든이 있을 곳을 아는 건 그 두 사람뿐이라고 수군댔다. 대체 무슨 소리들을 하는 건지, 의아해하며 교실로 향하는 제스에게 이든이 작년에 사귀다 헤어진 조쉬가 다가왔다. 이든이 사라졌다는데, 혹시 리암이 한 짓은 아니냐고 묻는 조쉬의 말에 제스는 자신만 아는 비밀이 떠올랐다. 리암은 얼마든지 이든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해친 적도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다.

등교하자마자 교장실로 불려간 제스는 그곳에서 리암과 마주쳤다. 그토록 화가 난 모습은 처음이었다. 헝클어진 머리며 잔뜩 찡그린 눈썹, 굳어버린 몸 전체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노가 느껴질 정도였다. 제스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안에서 뭐라고 묻더냐고 물어보았지만 리암은 제스를 본 척도 하지 않고 가버렸다. 교장실 안도 엉망진창이 된 건 마찬가지였다. 사무실도 옷차림도 늘 말끔한 교장 선생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책상 위는 어수선했다. 익숙한 얼굴들이 몇 명 보였지만, 교장 선생님은 모두 내보내고 제스만 남겼다. 그리고 믿기 힘든 소식을 전했다. 이든이 어젯밤에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 뒤로 소식이 두절된 채 사라졌다는 것이다.

서로에게 너무 다른 모습으로 기억된 지난 여름의 추억, 뜨거웠던 우정과 상실, 그리고 배신

제스는 어젯밤에 평소처럼 이든과 스쿨버스 정류장에서 만났었다. 이든은 리암과 데이트를 하

러 간다고 했다. 교장 선생님은 이든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아침에 이든의 휴대전화번호로 보내진 문자메시지가 이든 엄마의 휴대전화로 도착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실종이라고 확신하는 건, 그 메시지가 심상치 않은 내용이라는 뜻이었다. 이미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이든의 부모님보다, 학교에 있는 그 누구보다 이든을 잘 아는 건 제스 한 명뿐이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교장선생님은 신신당부를 했다. 지난 여름, 그리고 지난 한 주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어젯밤 마지막으로 본 모습까지, 이제 제스는 그 모든 기억을 다시 꺼내야 했다.

이든을 찾을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기로 결심한 제스는 이든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하나씩 다시 떠올린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불과 얼마 전 둘이 함께 보낸 그 여름의 기억들, 그때 일어난 일들을 되짚던 제스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새로운 사실을 포착한다. 그러자 이든과 보낸 그 여름의 모든 일에 의구심이 피어났다. 바로 그 순간부터, 제스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의 길에 접어들었다. 우정과 상실, 배신이 기다리고 그 길에서 제스는 스스로를 새로이 발견한다.

마음 깊이 상처를 남긴 기억과 거짓말, 사랑이 뒤엉킨 제스와 이든의 이야기에는 눈물과 잊고 살던 학창시절의 추억을 일깨우는 강렬한 순간들이 가득하다.

<저자 소개>

리즈 플라나간(Liz Flanagan)은 출판사에서 아동도서 편집 일을 하다가 최근까지 'Ted Hughes Arvon centre'를 운영했다. 현재는 고향인 영국 웨스트요크셔 주 헵든 브리지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글을 쓰고 있다.